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주왕산 세계지질공원 탐방안내소

해설단계	세부 시나리오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왕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일하는 자연환경해설사 ooo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물 소개	오늘 저와 함께 하실 공간은 국내 최초의 지질탐방안내소로서 국립공원과 청송군이 함께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으로써 건물은 지상1층 건물로서 면적은 약 1,074㎡(324평)로 기존 건축의 방향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전시 내용을 담도록 노력 하였으며, 또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도모하는 복합기능을 부여 하여 주왕산국립공원을 탐방 하시기 전에 안전 수칙과 주왕산국립공원을 탐방하시면서 재미를 부여 할 수 있는 정보공유의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테마를 소개하면 크게 국립공원 소개와 지질공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주왕산의 보배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 됩니다. 시간은 약 40분정도 소요됩니다.
국립공원 소개 (한국의 국립공원)	여기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은 몇 개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총 22개의 국립공원으로서 그 중 주왕산국립공원은 12번째로 1976년 3월30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경관 및 문화자원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이러한 곳을 국민들이 훼손 없이 이용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자연 그래도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은 산에만 있을까요? 국립공원은 산악형 국립공원인 가야산, 계룡산, 덕유산,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오대산, 월악산, 월출산, 지리산, 치악산, 한라산 , 무등산, 태백산으로 총 17곳의 산악형과 해상· 해안형 국립공원인 다도해해상,한려해상, 변산반도, 태안해안, 총 4곳의 해상· 해안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적형인 경주 1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인 1929년에 금강산이 국립공원 후보지로 언급되었고, 1935년 금강산· 백두산의 지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63년 지리산지역 개발위원회가 설치되고, 1965년“공원법”안이 상정 되었으며,1967년12월27일 지리산국립공원 지정안이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심의회를 통과하여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을 최초로 만든곳은 어느나라일까요?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인 1872년에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지정되었습니다.
국립공원 소개 (주왕산국립공원)	조금 전에 주왕산국립공원은 몇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였는지 기억 하시나요? 맞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은 12번째로 1976년 3월30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조선 숙종 때 편찬된 이중환의 택리지(지리를 풍수와 문화에 접목해 만든 인문지리서)에서‘돌로써 골짜기를 이루어 마음과 눈을 모두 놀라게 하는 산’이라 기록된 것을 보면 주왕산이 이미 오랜 옛날부터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청송군과 영덕군에 걸쳐져있는 주왕산 국립공원은 면적이 약 105.595㎢으로서 보는 이를 한눈에 사로잡는 암봉과 깊고 수려한 계곡이 빚어내는 절경을 간직한 최고의 명산입니다.
주왕산이라고 하면 다들 왕이 있었던 곳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주왕산은 전설을 숨겨 놓은 전설의 산이기도 합니다.
주왕산은 처음부터 주왕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특이한 바위들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다하여 석병산, 산이 깊어 전쟁이나 큰일이 날 때 마다 이곳으로 피난을 온 사람들이 많았다하여 대둔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라시대에는 주왕전설로 인해 주왕산으로 불렸으며,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 아내인 소헌왕후(청송 심씨)의 선산으로 지정되면서부터 문헌상 주방산이라 기록됩니다.
그 이유는 반란자 이름에서 유래된 산 이름을 그대로 왕비의 선산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문에서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왕 이외에 왕이라는 명칭을 함부로 쓸 수 없어 주왕산의 이름을 주방산으로 바꾸고 국가에서 편찬하는 모든 서적에 주방산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구전은 쉽게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주왕산의 이름은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어떤 전설로 인하여 주왕산이라고 불려 지게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주왕산에는 두 가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도와 연관된 설입니다. 중국 진나라에서 복야상서 벼슬을 지낸 주의라는 사람의 9대손인 주도가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범상치 않아 왕후장상을 꿈꾸며‘황하강의 물을 들이마시고 태산을 갈아 뒤 엎겠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성인이 되자 주도는 혼란한 시대를 틈타 후주의 천왕(주왕)임을 자청하며 반기를 들고,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쳐들어갔으나 곽자의 장군에게 대패하여 숨을 곳을 찾아 요동반도를 따라 관동(강원도)지역을 거쳐 진성(청송진보)에 다다르게 됩니다.
주도는 석병산(주왕산의 옛 이름)이 매우 깊고 험준하다는 말을 듣고 이곳에 숨어들었으나, 식량이 없어 인근 주민들을 약탈하고 노략질하였습니다. 이에 신라 마 장군 형제와의 전쟁에서 주도는 죽게 됩니다. 이 전설에서 주왕산이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신라 말 약 150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혼란기에 신라 37대 선덕왕이 후손이 없어 무열왕 6대손인 김주원이 왕으로 추대 되었으나 신라의 수도인 경주로 향하던 도중 큰 비를 만나게 되어 신라에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때 상대등(현재 국무총리와 비슷함) 김경신은 김주원이 오지 못하는 때를 이용해 자신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을 알게 된 김주원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운명임을 여기고 주왕산에 은거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의 아들 김헌창은 822년(헌덕왕14)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완산주, 청

	주, 사벌주 등을 장악하여 나라 이름을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고 짓는데 결국 신라 관군에게 패하고 웅천주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왕산 명칭유래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있지만 최근에는 김주원 설이 더 확실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토사학자 김규봉씨는 주왕산의 명칭유래가 억울하게 왕권을 빼앗긴 김주원과 그의 아들 김헌창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반란은 공공연한 비밀로 은폐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은폐된 역사를 전하기 위한 낭공대사의 노력으로 김헌창의 반란은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로 꾸며지고, 등장인물도 모두 가명이 사용되어 오랜 세월 주왕산의 전설은 중국 주왕의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주도와 김주원 두 가지 전설 중 어느 것이 사실이든지 간에 주왕산에 스며있는 전설들은 지금의 주왕산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이야기가 갖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왕이 되지 못한 자가 이곳에 숨어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사람이 숨어 살기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주왕계곡을 올라가면서 예전에 주왕이 숨어 살았을 모습을 한 번씩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주왕산 세계지질공원 탐방안내소

해설단계	**세부 시나리오**
지질공원 소개	조금 전 까지 국립공원에 대하여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 지질공원에 대하여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질공원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질공원은 지궁에 살아가는 사람과 동식물의 터전이 되는 지질과 경관을 보존하고자 만든 제도로서 이 땅을 구성하는 지질, 자연, 문화, 역사 등 여러 가지의 요소가 있을 텐데 그것을 연계하여 교육과 관광에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질공원에 찾아와 배우고 체험하면,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를 통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아져 주민 스스로 보존에 관심을 가지게 되게 하는 것이 지질공원의 지정 목적입니다. 이 지질공원은 1972년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세계유산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754건 중 52개가 지질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지질공원의 개념을 발전 하였습니다.그 후 1989년 국제 지질연맹에 의해 지질명소의 개념이 도입되고, 1999년에 유네스코에서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공식제도화에 대한 논의 후 2000년에 유럽지질공원 네트

	워크결성 후 2004년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현재의 정립과정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러면 청송군처럼 국가지질공원과 세계지질공원 과연 뭐가 다를까요? 먼저 국가지질공원은 각 나라에서 인증하는 지질공원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에 자연공원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지질공원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환경부장관의 인증하며, 제도의 운영 및 관리는 국립공원공단 지질사무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질공원을 조성 후 유네스코에 제안서 제출 후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친 후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나 현지 실사에서 미흡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인증을 못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탈락이 됩니다. 그러나 인증을 받게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후 4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통해 회원자격이 유지여부를 다시 심사 받게 됩니다. 또한 세계지질공원의 인증은 세계지질공원위원회에서 인증하며 인증 후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의 회원으로서 가입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4개소의 세계지질공원이 있습니다. 제주도, 청송, 무등산 권, 한탄강을 포함함 44개국 161개소의 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되었습니다. 그 중 최고로 지질공원이 많은 나라는 어디 일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41개의 세계지질공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세계지질공원인증을 받은 곳은 제주도로서 2010년에 인증 받았으며, 그 다음 받은 곳이 바로 내륙에서 2017년 최초로 받은 청송입니다. 그 후 2018년에 무등산 2020년에 한탄강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질공원 소개 (국립공원과지질공원)	그러면 이러한 지질공원과 국립공원의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립공원과 지질공원 모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관리 하게 되고, 지질공원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의 보전에 그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연자원 활용에 제한이 많고, 보호수준이 강합니다. 반면에 지질공원은 보전도 하지만 지질자원을 활용한 교육과 관광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보호수준이 약하고, 지질공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주왕산 세계지질공원 탐방안내소

해설단계	세부 시나리오
지질공원 소개 (바위의 생성)	이곳 주왕산은 중생대 백악기 후기인 1억년~6,500만 년 전 주왕산은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는데 수많은 화산 폭발과 그에 분출된 암석 파편과 화산재가 수백 미터나 쌓일 정도로 화산활동이 아주 활발하였는데 그 파편과 재들이 바람과 물, 중력 등으로 깎이고 떨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주왕산입니다. 떨어져 나간 것이 바로 폭포가 되고. 물과 같은 것으로 흘러내려가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계곡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명승 11호로 지정된 주왕계곡으로 올라가다보면 암석과 물, 바람, 중력이 만들어 낸 기암단애, 급수대, 주상절리, 용추협곡, 용연폭포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상소개 (주왕산tv)	이곳은 우리에게 친숙한 비발디의 사계를 마음의 귀로 들으며 주왕산의 4계절의 비경들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신록이 묻어나는 주산지의 봄과, 초록물결이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여름의 주방계곡, 강렬한 색을 이기지 못해 터질 것 같은 절골의 가을 단풍들, 그 오랜 세월을 꼿꼿하게 이겨내고 있는 겨울의 기암 단애 등을 마음의 눈으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의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주왕산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주왕산 tv 영상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상의 야영장 카라반 실사용 후기 2. 축조 300주년을 맞이한 주왕산 대표 명소 주산지소개 3. 주왕산 최고 미남직원이 추천하는 사진명소 BEST 4 4. 장애우를 위한 주산지 수어영상 등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주왕산 세계지질공원 탐방안내소

해설단계	세부 시나리오
고목갤러리 (꽃돌)	이곳은 청송의 꽃 돌을 전시해 둔 곳입니다. 청송에는 유명한 돌이 있습니다. 마치 꽃과 같다고 하여 붙혀진 이름인데 그게 바로 '꽃 돌'입니다. 이 꽃 돌은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라는 곳에서 생산되며, 지금은 세계지질공원 지정으로 채취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 꽃 돌 또한 화산활동의 흔적으로서 뜨거운 마그마가 암석을 녹이며 암 석 사이로 들어가면서 암석의 성분이 녹아 색과 모양이 다른 형태로 만들어 지는 것 입니다. 이것을 잘 보이도록 수 백, 수 천 번 가공 연마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꽃 돌입니다. 이 '꽃 돌'이라는 것은 구과상유문암을 가공하여 만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송 구과상유문암은 신생대 제3기에 만들어졌는데, 유문암은 석영 등과 같이 유리처럼 반짝이는 결정을 가진 화산암을 말하고, 구과상(球課狀)은 화산활동에 의해 관입된 마그마가 빠르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동그란 꽃 형태의 구조를 지니게 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유문암은 현무암보다 수정이라고도 불리는 석영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밝은 색을 띄며, 지표 근처에서 빠르게 식어 만들어진 암석을 말한다. 즉, 유문암질 마그마가 빠르게 식으면서 아름다운 구과상의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꽃돌은 종류에는 국화나 장미, 해바라기, 무궁화, 다알리아 등 그 종류와 색상에 따라 60여 종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청송지역의 구과상유문암은 꽃의 모양이 크고, 색상과 무늬가 다양하여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기암갤러리	저기 앞에 보이는 바위가 주왕산국립공원의 랜드 마크인 기암이라는 바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바위의 모양이 기이해서 「기이할 기(奇)자」 기암이라고 이름이 불렸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 기암은 주왕이 군사가 많다는 속임수를 쓰기 위해 바위에 수많은 깃발을 꽂았다 하여 깃발 기(旗)자와 바위 암자를 써서 기암(旗巖)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기암은 주왕산이 생성되었던 약 7천 만 년 전부터 풍화와 침식을 거치면서 저렇게 독특한 형태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암을 보는 것이 좋지만 대전사에서 바라보는 기암 또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대전사에서 기암과 대전사를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찍으면 잘 나와 많은 탐방객분들이 사진 찍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잠시 동안 기암을 감상 하시면서 자신에게 힐링이 되는 시간을 가져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국립공원을 단순히 정상만을 오르기 위해 또는 정상의 경관을 보기 위해 맹목적으로만 산행을 다닌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힘들게 살아온 나를 위로해주고 내 삶을 치유를 해 주는 시간을 가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주왕산 세계지질공원 탐방안내소

해설단계	세부 시나리오
체험	「암석 촉각 체험」 밖에 보면 돌들이 많이 모아져 있죠? 우리 나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평소에 돌을 많이 만져볼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 돌은 무슨 느낌이고, 저 돌은 무슨 느낌인지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씩 눈을 감고 여기 있는 암석을 골라 오로지 촉각에 집중해서 만지는 느낌 그대로 암석을 표현해보겠습니다. 〈**참여자**〉 이 암석은 꺼칠하다. 부드럽다. 울퉁불퉁하다 등등~~~~~~~ 〈**운영자**〉 잘 표현해줬어요. 이 암석은 응회암입니다. 이 응회암은 주왕산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암석으로서 화산재로 만들어진 퇴적암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돌들을 만져보면서 어땠나요? 똑같은 돌이라도 각자 느낌이 다 다르죠? 이렇게 암석들은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석이라고 하지만 그 암석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고 그 특성이 같다고 하여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릅니다. 이 느낌을 가지고 무슨 암석이라고 말보다는 그 암석마다 가지고 있는 돌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동해볼게요.
	이상으로 탐방안내소의 전시물들을 다보셨는데요. 느낌이 어떠신가요? 미국이나, 중국처럼 땅 덩어리가 큰 나라에는 세계자연유산이 많습니다. 그곳을 다녀오신 분들은 청송은 왜 이리 소규모냐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를 우열이 아니라 서로 다름으로 인식해야 하듯이 자연을 사이즈가 커야 좋다고 평가 할 것이 아니라 단지 크고 작고의 차이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왕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다른 산에서 볼 수 없는 화산이 격렬하게 폭발한 뒤에 흘러내리다가 굳은 회류응회암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이는 봉우리 하나, 하나가 계곡과 조화를 이뤄 몽환적인 풍광을 연출합니다. 주왕산은 한마디로 화산이 만들고 시간이 조각한 산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22개 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3.8%에 지나지 않지만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60%, 국내 생물종의 40%가 국립공원 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자연 생태계의 보고이자, 멸종위기 야생 동 ,식물 최후의 성지입니다. 우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국립공원에 대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